

‘호조세’ 하우스감귤 8월 값 소폭 하락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 상품 3kg에 2만2000원 예상
출하량 6.8% 증가로 지난해 2만3500원보다 떨어질 듯
노지감귤, 생육 양호… 마른 장마로 병해충 발생 감소

가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제주 하우스감귤이 8월에는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8월 관측정보’에 따르면 8월 하우스감귤의 서울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3kg 기준 2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3500원)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6월 하우스감귤 평균 도매

가격은 3kg당 3만3000원으로 평년(2만5900원)과 지난해(2만7900원)보다 10% 안팎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2만2300원으로 평년(2만2000원)과 지난해(2만2500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업관측센터는 8월 가격 하락 전망의 배경으로 출하량 증가를 꼽았다. 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7월 반입량은 고유가 여파로 농가의 가온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난해보다 3.1%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은 복숭아·포도·수박 등 여름철 대체 과일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우스감귤은 기상 여건이 좋아 지난해보다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9월 이후 하우스감귤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산 하우스감귤 처리계 획량은 2만6800t으로, 2025년산(2만7280t)과 2024년산(2만7036t)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노지감귤 생육 상황도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장마로 병해충 발생도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또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2차 생리낙과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전체 생리낙과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면적당 노지감귤 열매 수는 서귀포시 지역은 생육 초기 기상여건이 좋아 해거리 영향에도 감소 폭이 크지 않지만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정상적인 착과가 이뤄지면서 열매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55세 이상 취업자 1000만명 첫 돌파

희망 근로 연령 평균 73.6세
절반 이상 ‘생계비 보탬’ 이유
10명 중 4명은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55세~79세 고령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 이후까지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절반 이상은 ‘생활비 보탬’을 이유로 꼽았고 10명 중 4명 가까운 이들이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상 고령자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 연령을 고려해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36만2000명으로, 35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5000명이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배로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1178만2000명으로, 1년 사이에 36만1000명 증가했다. 장래 근로 희망 비중은 69.2%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보다는 0.2%p 하락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희망 은퇴 시점)은 73.6세로 1년 전보다 0.2세 늘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53.4%)이 가장 컸다. 여전히 과반이지만, 작년과 비교해 1.0%p 낮아졌다. 2019년(60.2%)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뒤를 이은 ‘일하는 즐거움’(36.7%)은 0.6%p 올랐다. 2021년(33.1%)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강원 농민들 “농사지을수록 빛더미”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농자재값 급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애호박과 썩은 배추를 바닥에 쏟아붓고 있다.

결혼식장 비용 4월이 가장 비싸다

한국소비자원, 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 비용 조사
4월 평균 2238만원… 가장 싼 1월과 325만원 차이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톱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합한 평균 결혼비용이 가장 비싼 달은 4월로 조사됐다. 비용이 가장 낮은 1월과는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계약 금액(2025년 4월~2026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예식이 불리는 성수기(3~6월, 9~12월) 평균 결혼 비용은 2156만원으로 비수기(1·2·7·8월) 평균(1954만원)보다 20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월별로는 4월 평균 결혼 비용이 2238만원으로 가장 높아 최저인 1월(1913만원)과는 325만원(17.0%)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 비용 중간 가격은 성수기 예식이 1610만원으로 비수기(1250만원)보다 360만원(28.8%) 높았다. 대관료는 성수기가 350만원으로 비수기(250만원)보다 100만원(40.0%) 비쌌다. 식대는 성수기 1200만원, 비수기 980만원으로 220만원(22.4%) 차이가 났다. 1인당 식대는 성수기 6만원, 비수기 5만5000원이었다. 최소보증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200명으로 같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대 총액의 차이는 1인당 식대 차이보다는 성수기

에 가격 규모가 크거나 가격대가 높은 예식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했다.

결혼준비대행 계약 중 스튜디오 촬영을 뺀 ‘드메(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비중은 지난해 4월 11.0%에서 올해 6월 19.2%로 증가했다. 최근 셀프 촬영 선호와 함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실속형 소비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드메 패키지의 중간가격은 160만원으로 스튜디오 촬영까지 포함한 스톱메 패키지(292만원)보다 132만원(45.2%) 저렴했다. 다만 드메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계약 전 실제 견적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결혼 계약이 가장 많았던 달은 5월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이어 6월(11.3%), 4월(10.3%), 10월(9.5%), 11월(8.7%), 12월(8.2%)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개사 가운데 68개사가 다양한 할인 정책을 운영했는데, ‘성수기 외 촬영’이나 ‘비수기 할인’ 등 시기·일정 관련 할인이 가장 높았다”며 “성수기에 예식을 계획한다면 대관료가 높고 필수 추가 항목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총액 기준으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폭염에 피서지 바뀌었다… ‘쇼핑몰’ 인기몰이

티맵 목적지 설정 분석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여름철 피서지 선택까지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과 영화관 등 냉방이 가능한 실내 시설을 찾는 수요는 늘어난 반면, 장시간 야외에 머무는 관광지로 향하는 이동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일 티맵모빌리티가 폭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주요 방문지의 목적지 설

정 건수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쇼핑 카테고리리는 5.2% 증가했지만 여행·레저 카테고리는 16.5% 감소했다.

쇼핑 카테고리에서는 대형마트가 26.2%, 백화점이 4.5% 증가했다. 극장은 52.1%, 과학관은 42.7%, 공연장은 39.2% 늘어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야외 레저시설을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는 폭염의 영향으로 급감했다.

연합뉴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곤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도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